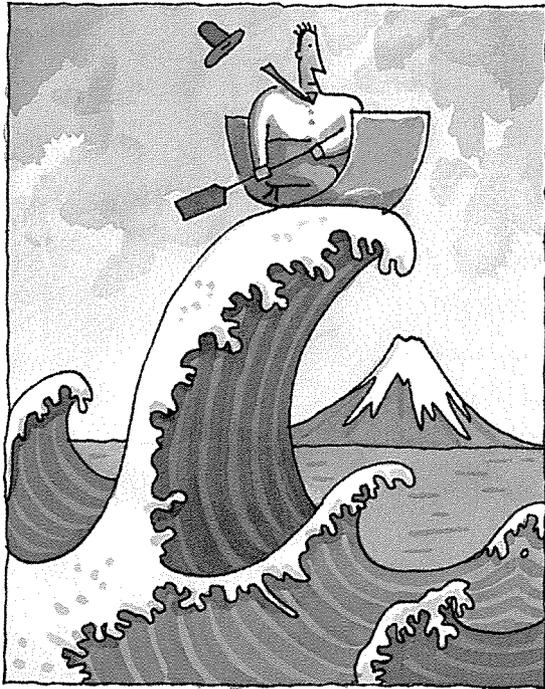


편견과 차별 해소,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

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짜된 '에이즈 감염인종의 인종살해 조사연구'에 참여하며 우리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종이 인종의 사각지대에 놓쳐왔고 있음을 직감하게 할 수 있었다. 에이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더 질병을 더 빨리 병으로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사법)이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염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의 부당한 경우를 꾸준히 규명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에이즈에 대한 과분한 공포는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초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글 | 이훈재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현대판 흑사병’ 또는 ‘성적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묘사되며 에이즈의 존재가 알려진 지도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1980년대 유행 초기에 에이즈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며, 치료약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었고 이를 위한 금욕과 콘돔사용이 강조되었다. 이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과 권리는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최근 20~30년 동안의 의학발전은 그 이전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해 축적해 왔던 것을 능가한다고 한다. 예방접종이나 특효약의 개발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에이즈와 관련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에이즈의 원인과 전파경로가 완벽히 규명되었으며, 혈액 한 방울만 있어도 20분 이내에 감염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활용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 머지않아 에이즈 완치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감염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물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사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검진

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의학기술로도 감염 후 평균 20여 년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감염인의 성적 파트너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에이즈 검사에 응해야 한다. 이미 감염된 사람의 경우 검진과 치료 받기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자해행위이다.

에이즈의 실체가 규명되었고 진단과 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이 병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전향적으로 변화되었다. 에이즈는 고혈압, 당뇨병, 간염 등과 함께 유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색 화제거리가 아니며, 그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자는 사회적 노력이 한창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에이즈 감염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 이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최근의 우리나라 현실은 외국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실시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의 결과에서는 우리 국민의 40.2%가 에이즈 환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었고, 51.8%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가 함께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은 4000명을 조금 상회하여 감염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발생 건수만을 놓고 본다면 에이즈는 대표적인 희귀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의 명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질병의 명칭만 인지하고 있을 뿐 정작 이 병의 실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필자가 최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동네 의사들 중 에이즈 감염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분은 전체의 10% 정도였다. 진료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대부분도 대학병원 등에서의 전공의 시절에 한 두 차례 스치듯 접해본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의사 중 감염인의 건강문제를 제대로 상담, 지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100명도 채 안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에이즈 감염인들의 문제제기가 과장된 것은 아니다.

가장 전염력이 낮은 전염병, 에이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이미

지는 아직도 '성적타락', '높은 전염력', '공포', '죽음' 등과 같은

1980년대 당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되어 있

다.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우리 국

민들에게 걸맞지 않는 후진적 인식

이다. 에이즈는 흔

히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일컫는 인간면역결핍 바

이러스가 유발하는 전염

병이다. 누구나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을 신의 징벌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시대착오

적인 넌센스다. 지금은 21세

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4000

만 명 이상의 에이즈 감염인

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낮은 것이 에이즈 바

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성 관계 시작 시점부터 콘돔을 착용하고 상처 또는 점막



을 상대방의 체액에 노출하지 않는다면 거의 완벽하게 감염 예방이 가능하며, 에이즈에 걸린 임신부가 임신 중 적절한 투약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한다면 신생아 수직감

염율을 1%로 억제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채혈을 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의료인의 감염확률은 0.3%로 알려져 있다. 감염환자 채혈사고 시의 감염 확률에 비하여 1백분의 1 수준이다. TV에서 보여주던 사망이 임박한 외국 에이즈 환자들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에이즈 감염인의 평균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크게 잘못된 인식이다. 미국프로농구선수 매직존슨이 에이즈에 걸린 후에도 농구코트를 다시 누볐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에이즈 감염인의 외형과 신체활동도 비 감염인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간단치 않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따듯이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 지상정이다. 그런데 배려는 고사하고 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사회라고 개탄할 것이다. 피해당사자로서는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이는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자책하다가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지 않는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사

회 에이즈 감염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경의 요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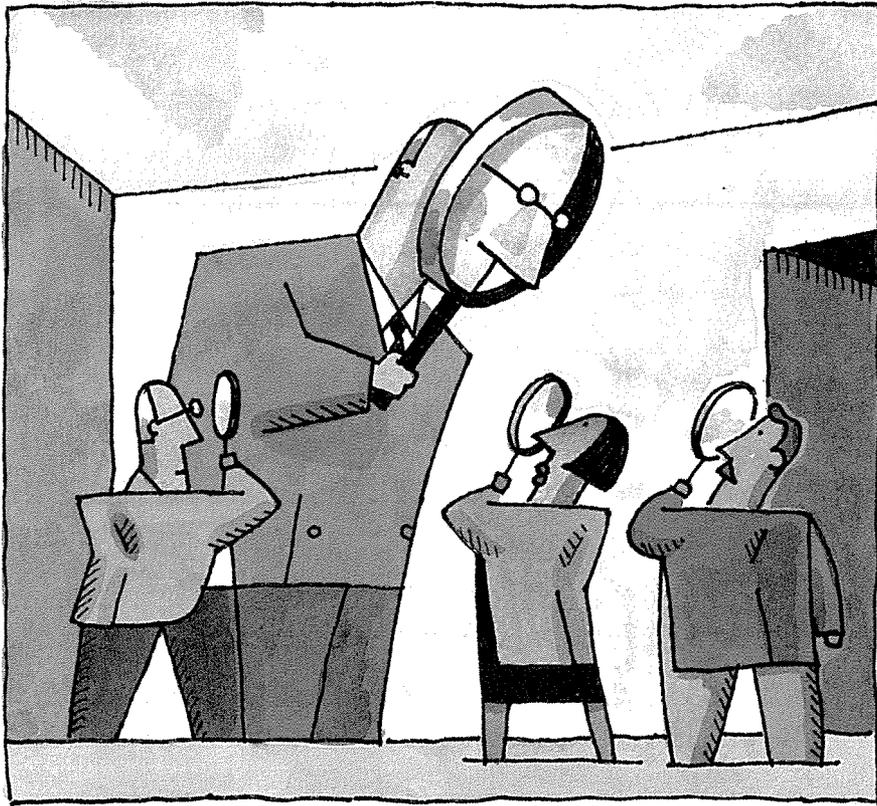
멸시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에이즈 감염인들을 움지로 내몰게 된다. 감염의 우려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이 지속되게 한다. 무지와 편견이 유지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인 에이즈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 언론의 역할이 중요!

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의 신체자유 침해, 감염사실의 부주의한 누설, 다양한 유형의 차별적 대우가 오히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소연을 그들의 피해의식 때문이라거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우리사회 에이즈 감염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첫째, 에이즈 감염인들의 연간 자살 사망률은 국민전체와 비교할 때 대략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둘째, 에이즈 감염인들과 청장년 당뇨병환자들의 삶의 질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에이즈 감염인들의 신체적 불편감은 비슷한 연령의 당뇨병 환자들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동도를 나타내는 점수는 당뇨병 환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사회의 멸시와 차별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우리사회가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이 질병을 마음의 병으로 앓게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주로 대중매체에서 얻고 있다. 따라서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언론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의 고착화 또는 변화에 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드라마 제작,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발간,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작업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역으로 에이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3대 일간지에 게재된 1,692건의 기사원문을 분석해본 결과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2년 7월 20일자 A일간지 사회면에 게재된 “미국 등에 미지의 괴질 크게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에이즈 관련 최초 보도였다. 이후 주로 외국에서의 에이즈 발생현황과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주제로 하는 기사가 간간히 보도되다가 국내에서 첫 사례가 발견된 1985년을 계기로 국내 발생현황을 보도하는 관련기사가 급격히 늘었

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최근까지도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기사 5.7%인 97건에서만 에이즈 감염인의 삶의 질과 인권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전쟁터의 원칙은 에이즈 예방활동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에이즈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의 홍보, 그리고 감염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꾸준히 고발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드라마 제작,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발간, 감염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작업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극소수 에이즈 감염인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아들에 대한 감시와 격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 에이즈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하였다. 반인권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이해시켜야 한다.